

# 우리 아이 첫 클래식 광주시향과 함께해요

시향 첫 미취학 어린이 음악회  
17~19일 문화전당 어린이극장  
송선미 연출, 현악5중주 무대  
'뽀로로' 등 연주...그림책 활용



광주시향 단원들이 15일 열린 'GSO KIDS' 공연 오리엔테이션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

"아기 상어 나온다! 귀엽게!"  
지난 15일,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 이종만 악장의 말에 단원들은 유쾌한 표정으로 연주를 이어갔다. 처음으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하는 단원들은 평소의 진지한 분위기와 달리 톱툰 뛰는 리듬의 동요 '아기 상어'를 연주하며 즐거워했다.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연"이라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주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유아인성교육지도사 프로그램 개발 연구원, Sweet Music Garden 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중인 송씨는 '미드나잇그림책 콘서트' 등 다양한 어린이를 위한 공연을 기획·연주했다.

해 모듬별로 기차놀이를 하는 활동도 마련된다.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 '선' (비룡소)을 바탕으로 펼치는 스토리텔링도 이채로운 콘텐츠다. 줄거리는 스케이트를 타며 빙판에 선을 그려나가던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자, 다른 아이들이 찾아와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아이들의 스케이트가 그려진 선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듯 다양한 악기들이 모여 웅장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내용이다.

이번 공연은 보케리니의 '현악 5중주 제5번 미뉴에트'로 막을 올리고, 최근 유튜브 등지에서 인기있는 어린이 음악 '아기 상어',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 주제가, 동요 '아빠 힘내세요' 등을 무대에 올린다.

광주시향 이종만(악장), 이수연(제2 바이올린 수석), 신정문(비올라), 최승욱(첼로 수석), 연은주(더블베이스)가 무대에 오른다.

한편 GSO KIDS 공연은 현악기 편에 이어 타악기, 관악기 등 주제로 2차례의 공연을 더 가질 예정이며, 이후 샘여름 등 다양한 음악적 소재를 주제로 개최할 계획이다. 전석 1만원(비지정석). 연령 제한 36개월 이상.

/유연제 기자 yjyou@kwangju.co.kr



풍물판굿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들 한자리서 공연

### 19일 국립광주박물관

임방울국악제를 빛낸 역대 수상자 공연이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에서 펼쳐진다.

광주박물관은 '임방울국악제 역대 수상자 공연'을 오는 19일 오후 3시 교육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 참여자는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광주시장상

등을 받은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 20여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27회) 판소리 명창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정혜빈 명창도 이번 공연에 함께한다.

공연은 제26회 농악부 대상팀 장호준 등 4명의 신명나는 풍물판굿을 시작으로 제27회 판소리 명창부 대상을 수상한 정혜빈 명창의 '흥보가' 중 '흥보 박타는 대목'을 관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김선제 아쟁연주회 17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인 김선제가 17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아쟁 연주회 '아쟁을 위한 남도 민속음악 Story'를 연다.

이날은 한일섭의 소리제 산조에 대체로운 가락을 더해 발전시킨 박종선류 '아쟁 산조'로 막을 올린다. 이어 악기 특유의 예민함으로 연주자가 많지 않은 철야쟁을 중심으로 해금, 거문고와 함께 즉흥 연주를 선보이는 '즉흥 헛튼산조', '진도씻김굿'을 기악 합주만으로 재구성한 남도 민속합주 '씻김 풀이'를 연주한다.

김선숙 소리꾼이 사회를 맡고 이왕재, 전미향, 조수희 등 연주자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국악 작·편곡가이기도 한 김선제(서울



시 무형문화재 제39호 박종선류 아쟁산조 이수자)는 구미 명창 박종주전국국악대전에서 종합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상임수석 단원, 목원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외래교수 등으로 활동 중이다. 전석 무료.

/유연제 기자 yjyou@

## 3·1운동 100주년,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세미나

### 광주·전남발전협의회 16일 광주향교

광주·전남발전협의회(회장 박재순)가 3·1운동 100주년과 임시 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16일 오전 10시 광주향교 내 유림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척 사상을 중심으로 한 자주독립사상과 계몽운동 및 근대화 운동을 주장한 광주·전남 출신 선각자들

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기획이다.

최영관 전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재필의 개화사상'과 '사회개혁과 민족운동의 선각자 오망 최홍중'을 주제로 정진석 한국의 국어대 명예교수와 한규무 광주대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류시현(광주교육대 교수), 김택진(광주교육대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한·아세안 10개국 열차 타고 광주 방문...미디어아트 특별전도



### 아시아문화주간 기념행사

2019 아시아문화주간 개막 첫날(17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을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를 방문하는 행사가 열린다. 또한 한·아세안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미디어아트 특별 전시가 개최돼 아시아의 상생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1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2019아시아문화주간은 2019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부산 11월 25-28일)와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4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기표)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이기표), 한·아세안센터(AKC·사무총장 이혁)는 한국과 아세안 대화관계 30주

년을 기념해 함께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광주를 방문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또한 문화전당 창조원 복합 1관에서는 '아세안의 문화 허브, 빛의 도시에 꽃피다'를 주제로 미디어아트 특별 전시(17일~11월 17일·예술감독 유원준)를 개최한다. 작품 자체가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부분을 포함하는 예술 작품을 뜻하는 '키네틱' 위주로 구성됐다.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와 문화허브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아울러 신남방정책을 반영한 '사람(People), 평화(Place), 상생번영(Prosperity)' 3P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취지다.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일로 랩'은 과거로부터 빛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미디어아트 스튜디오다. 공학, 디자인, 영상을 전공한 미디어아티스트들이 모였으

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는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하늘에 올라가는 제의적 의미의 작품 '풍화(風花)'와 백열전구를 모티브로 따뜻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전달하는 '묘화(妙花)'를 통해 빛의 기술적 과정을 추적한다.

'풍화(風花)'는 복합 1관 천정 부분에 설치돼 전체 공간을 감성적인 빛의 색채로 물들이는 작품으로, 수직적 움직임을 매개로 하늘로 날아오르는 아시아인들의 염원을 상징한다. 반면 '묘화(妙花)'는 1879년 등장한 이래 100년 이상 주변을 밝히는 백열전구의 소멸 과정을 감성적으로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전시 관람은 복합1-4관까지 통합운영권을 발권해 관람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